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한국 관광공사 DATA LA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우선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사람 순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총관광 수입은 2019년 2억 745백만 달러를 기록한 후 코로나19 당시 1억 181백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며, 2023년 1억 5,112백만 달러로 차츰회복해 나가는 추세임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방한 여행 관심도 역시 80.76%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방한 여행 이미지는 코로나19 전후 관계없이 60% 안팎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